

2000년도 민속자료 발굴 보고서

성호리 원성호마을

오 방 제

자료조사 보고자

김 정 현

홍 성 문 화 원

2000년도 민속자료 발굴 보고서

성호리 원성호마을

오 방 제

자료조사 보고자 김 정 현

발 간 사



20세기의 끝을 맺는 시기에, 홍성지역의 숨겨진 전래문화를 동분서주하며 우리고장의 민족발굴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 조상의 삶의 발자취를 찾아 후세에 전승시키는 중요한 작업으로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신 그 업적은 후학들에게도 좋은 지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천년 역사속에서 문화의 꽃을 피워온 문화민족입니다. 우리 내포지방의 꽃봉우리가 주민모두의 힘에 의해 활짝 피워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가 지역문화에 관심을 기울여 줄 때 발간작업에 애쓰신 분에게도 큰 위안이 되리라 믿습니다.

물질적 문명 못지 않게 정신적 문화가 함께 꽃피워 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새로운 세기를 목전에 두고서 문화창달에 함께 노력하는 이시대의 주인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읍시다.

홍성문화원장 李 夏 永

차 례

제1장 마을의 개관	3
1. 지명의 유래	5
2. 지리적 배경	5
3. 역사·문화적 배경	5
4. 성호리의 변천사	6
5. 성호리의 여러 지명들	6
6. 성호리의 주민 분포	7
7. 성호리의 산업	8
8. 성호 향약	8
9. 성호리의 효열	9
제2장 사진으로 본 성호리의 여러 모습들	15
제3장 성호리의 오방제	31
1. 명칭	33
2. 성격	33
3. 당집의 위치	33
4. 당집의 형태	34
5. 제의 목적	34
6. 제일	34
7. 제의 주관자	34
8. 금기	35
9. 제물과 제의 절차	35
10. 제사의 비용과 결산	36
11. 마을사람들의 신앙 태도	37
12. 유래 및 전설	37
제4장 사진으로 본 성호리 오방제	39

제 1 장

마 을 의 개 관

제 1 장 마을의 개관

1. 지명의 유래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는 뒤편으로 왕자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고, 앞쪽으로는 바닷물이 갯고랑을 타고 들락거린다. 바람이 잔잔한 날은 마치 아름다운 호수를 연상케 할 만큼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이다.

지금은 홍보댐 간척사업으로 바닷길이 막혔지만, 몇년전 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바닷물이 출렁이던 마을이었다.

성호리의 이름은 마을 앞에 호수(사실은 바다)가 별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별(星)과 호수(湖)가 합쳐진 이름이다.

2. 지리적 배경

성호리는 몇년전 까지만 해도 홍성군 서해안에 자리잡은 조그만 포구마을이었다. 천수만에서 천북면 장은리 앞바다를 통해서 수룡동으로 들어오는 바닷물은 성호리를 통하여 성남리에서 끝을 맺는다.

성호리로 통하는 길은 육로 뿐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바닷길이 있었지만, 천북면 장은리와 서부면 남당리를 잇는 간척사업으로 뱃길이 끊긴 상태다. 육로는 결성을 지나서 가곡마을쪽으로 들어오는 길과, 서부면 판교리를 통해서 수룡동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다. 정기노선 버스는 가곡쪽과 판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길 두곳 뿐이다.

3. 역사·문화 배경

성호리에는 관해정이라고 부르는 정자가 있다. 이 정자는 유학의 명문인 남당 한원진을 비롯한 많은 유학자들이 시문을 강론하던 정자이다.

결성지역 일원은 성리학 호서학파의 근원지로 알려져 있다. 옛날부터 벼슬길에 오르는 길을 꺼리는 선비들이 많이 우거하였던 지역이다.

이곳 성호리 역시 많은 선비들이 강론소를 건립하여, 오가는 정객들과 환담하던 명소가 많았던 곳이다.

성호리는 금녕김씨가 수백년동안 터를 닦아온 지역이다. 일제시대에는 김좌진장군에게 독립자금을 제공해주기도 했던 금녕김씨의 전통가옥과, 성호리 일대의 역사와 문화

적인 사실을 고증해주는 많은 고문서들이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

4. 성호리의 변천사

옛날에는 성호리가 천혜의 어항으로 인근 해안의 해산물 집산지 역할을 했다. 여기로 모여진 해산물들은 보부상들에 의해서 내륙으로 팔려나갔다.

성호 나루터 주변으로는 가까운 해안에서 잡아들이는 어물량이 많아서 전용 어물시장이 열리기도 했다. 성호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는 결성장, 용호장, 갈산장, 성남장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장항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상권이 서서히 철길을 따라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곳 지주들은 상권 회복을 위해 바닷가에 염전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큰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

지금은 옛날의 호황을 누리던 흔적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성호 나루터는 바닷물이 막혀서 뺄의 흔적만 남아 있다. 한 때 소금을 생산했던 염전 터는 논과 민물고기 양식장으로 사용되며 그 터만 남아있는 정도이다.

성호리가 한창 번창하던 때는 300여 호가 모여 살기도 했다. 지금은 86세대가 살고 있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앞바다에서 굴을 생산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막혔다. 뺄 주변으로 조개껍질만 여기저기 쌓여있을 뿐이다.

5. 성호리의 여러 지명들

성호리는 가곡, 후청동, 원성호 등 3개 마을이 있다.

자연 지명으로는 개전너, 나루개(돌곶이나루, 버그머리), 당집젯부리, 대숲말, 돌구지나루, 뒷골 성황당고개, 왕자산, 용충터, 죽가실, 피촌말, 후청동 등이 있다.

개전너는 적가실 서쪽 마을을 말한다. 마을이 개울 건너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에는 후청동 입구에 있는 해창 갯고랑까지 조수물이 들어왔다. 결성쪽이나 적가실 마을 쪽에서는 개를 건너야 하므로 개전너라는 지명이 생겼다.

나루개는 마을에 난정이란 정자가 있어서 난정이라고도 부른다. 돌구지나루가 있다고 해서 나루개라고도 한다. 또한, 버그머리, 돌구지라고도 부르고, 뱃머리와 버금가는 머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집젯부리는 원성호와 뒷골 사이에 있는 산부리를 말한다. 옛날부터 산부리에 당집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숲말은 죽가실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에 대나무숲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구지나루는 바닷가에 있는 나루터를 말한다. 보령군 천북면과 왕래하는 나루라고 해서 ‘천북나루’라고도 부른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상인들을 실어나르는 배가 있었다고 한다.

뒷골은 마을의 뒤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이 마을과 산의 뒤에 있다고 해서 뒷골 또는 후동이라고도 부른다.

뱃머리는 배가 들어오는 입구의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두라고도 부른다.

성황당 고개는 성호마을에서 적가실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옛날에는 성황사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때때로 제사를 지냈다고도 한다.

안봉골은 옛날에 청룡산 상봉에 봉수대가 있었는데, 봉수대 아래 안쪽으로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충터는 옛날에 나루개 동쪽으로 못이 있었던 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죽가실은 성호마을 동쪽으로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마을에 대나무숲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곡, 절가곡, 죽가곡이라고도 부른다.

피촌말은 대숲말 동쪽으로 있는 마을이다. 피촌이라고도 부르며 옛날에 백정이 살던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후청동은 성호마을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깨끗한 냇물이 흐른다고 해서 후청골 또는 수정골이라고도 부른다. 120여년 전에 나주김씨인 노인이 덩불을 치우고 자리를 잡으면서 번성해간 마을이라고 한다.

6. 성호리의 주민 분포

성호리의 주민분포를 보면 2000년 현재 남130명, 여137명, 계267명이다. 지난 30여년간의 인구 변동 상황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성면지(1993년, 결성면지편찬위원회 발행)에 의하면 1972년 1108명이던것이, 1982년에는 872명으로 줄었고, 1992년 말에는 550명으로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1992년의 가구수로는 후청동이 23가구에 80명(남41명, 여39명), 가곡이 33가구에 109명(남52명, 여57명), 원성호가 92가구에 361명(남181명, 여180명)이다.

7. 성호리의 산업

성호리는 몇년 전 까지만 해도 농업과 함께 앞바다에서 굴양식을 하고, 조그만 배로 고기잡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바닷길이 막히는 바람에 바다에서의 모든 생산활동은 중단되었다. 성호리의 산업활동은 이제 농업이 주가 되었다.

8. 성호 향약

성호향약은 1795년(정종19년)에 성호리에서 금녕김씨 후손의 주선으로 7인의 문중계로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은 애친경장지도(愛親敬長之道)와 양생송사시절(養生訟事之節), 환난상휼지방(患難上恤之方)을 조약으로 정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30년 후인 1825년에 8인을 추가하고 내용도 다시 가다듬어 운영하였다. 그리고 전자를 상계(上契)라 하였고, 후자를 하계(下契)라 하였다.

다시 12년 후인 1837년에 가구수가 늘고 사람이 많아져 절목과 과조(科徭)를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지방의 향약좌목을 참고하여 부계(副契)를 다시 만들어 시행하였다. 당시 계원수는 142명(상계 7인, 하계32인, 부계103인)에 달하는 방대한 자치기관의 출현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처음 금녕김씨의 문중계로 운영될 당시는 조항이 15항에 불과했으나, 상계, 하계, 부계로 커지면서 12항의 금송규정(禁松規定)을 추가하여 향리풍습을 바로잡는데 맞도록 27개항과 부칙 2개항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이율곡이 초안한 향약정신을 숭배하여 모방한 것으로서, 충청도의 풍습 적용에 우선하였고, 특히 금송규정(산림보호령)은 대단히 엄하게 되어 있다.

그중에서 성호향약의 좌목 몇 개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원문은 생략하고 해설문만 옮겨 적음)

서(序)

마을에 향약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옛날 제도이다. 세상에는 혹 잘 행해지는 곳도 있고, 또 시작은 잘하다가 끝에 가서는 태만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일도 있다.

—중략—

여러 사람들이 내 뜻을 알아서 문서로 서약은 안했지만, 각자가 성호리의 향약실천에 마음을 합하여 힘쓰게 되면, 향약이 비록 옛제도이나 만의 하나라도 따뜻한 마

음이 보존될 것이니 두고 볼 일이다. 을묘년(1885) 겨울에 성호에 사는 사람이 쓰다.

3항(頂)

선악을 가려 장부에 기록하고 상벌한다.

상을 줄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우애하며 어른을 존경하고 마을 사람과 화합하며 자기의 과오와 자신의 인색함을 스스로 고칠 줄 알며, 능히 의기로 다른 사람이 위급할 때 구제해줄 줄 아는 사람이다.

벌할 사람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화하며, 젊은자가 어른을 능멸하고 이웃과 불화하며 기운이 세다고 약한 사람을 능멸하고 말을 만들어 사람을 중상하고 술만 좋아서 싸우기 좋아하는 자, 남녀 무례와 부녀자를 희롱하는 자이다.

공무원(현재 이사)은 위와 같은 선악자를 수소문하여 기록하여 두었다고 회합할 때 상존위(회장 또는 향장)께 말씀드려서 선한자는 상을 주고 악한자는 벌을 주되, 개과천선한 자는 명부에서 삭제해 준다. 만약 이런일로 인하여 서로 원수 삼아 구타하고 싸워서 다음 회기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연령, 노소, 정황과 사유 등을 살펴서 사과와 고치도록 타이른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 때는 상존위께 말씀드려 벌한다. 또한 동리에 악행자가 있는 것을 공무원이 모르는 체하여 상존위께서 먼저 수소문하여 알았다면 공무원도 중벌 곤장 15대를 맞는다.

11항(頂)

마을에 실화로 집과 재산을 다 태운 자에게는 계중에서 쌀 5말과 동리사람들은 개초 한편과 재목 한개, 새끼 10발을 가지고 가서 도와준다.

재산은 꺼내고 집만 태운 자에게는 개초할 것만 가지고 가서 도와준다. 또 마을에 불이 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가서 도와준다.

14항(頂)

도벌한 자는 산직이 잡아서 하존위 앞에 데려와 벌을 준다. 거역하는 사람은 상존위 앞에 잡아와 종죄로 벌하고, 오히려 뉘우치는 기색이 없으면 관청에 고발하여 중벌을 받게 한다. 산직이 잡아오기 어려우면 관청의 사령을 시켜서 잡아오도록 한다.

—이하 생략—

9. 성호리의 효열(박기용 효자문)

1) 박씨 가문에 내려오는 전설

얘기는 대략 2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간다. 장소는 성호리 부근에 있는 야산쯤으로 짐작된다. 박기용 형제는 결혼하여 한동네서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애, 아우야. 오늘은 날씨도 포근하고 나무나 한 짐 하러 가면 어떨까?”

형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예, 형님. 마침 나무하기에 꼭 좋은 날씨로군요. 같이 가시지요.”

두 형제는 마을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떠났다. 얼마동안 가파른 산길을 열심히 올라 가던 두 형제는 깜짝 놀랐다.

“아니, 저건 사람이 아닌가? 누가 저렇게 쓰러져 있을까?”

두 형제는 급히 달려가 보았다. 가까이 달려가보니 나이든 스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두 형제는 등에 지고있던 지게를 벗어던졌다. 허리를 구부려 스님의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았다. 다행히도 아직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끊어질듯 말듯한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두 형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즉시 스님을 들쳐 업고 집으로 내달렸다. 나무를 하는 것은 이제 저만큼 뒷전이였다.

두 형제는 집으로 업고온 스님을 정성껏 간호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초근목피로 연맹 하던 어려운 시절이었으니, 양식인들 변변한 것이 있을 리 없었다. 두 형제는 부모님 제사 때나 쓰려고 간직해놓은 쌀로 미음을 끓여서 스님을 간호하였다. 두 형제의 간호가 보람이 있었는지, 스님은 며칠후에 의식을 되찾았다. 의식을 되찾은 스님은 다시 행장을 꾸며서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스님, 아직도 완전한 건강을 되찾으시려면 여러날이 더 필요하실텐데요. 며칠 더 계신다가 떠나시지요.”

두 형제는 진심으로 스님을 붙잡았다.

“아닙니다. 그대들이 덕분에 목숨도 건졌고, 이제 건강을 되찾았는데, 더 이상 무슨 폐를 끼친단 말ियो?”

두 형제는 스님을 더 이상 붙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그냥 길 떠나는 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혹시 훗날이라도 은혜를 갚은 일이 될지 모르는 일이니…….”

스님은 대문간을 나서다 말고 배웅 나오는 두 형제를 바라보며 한마디 불쑥 내던졌다.

“두분의 장래 소원이 있다면 한가지씩만 말씀을 해보시지요.”

“.....?”

처음 두 형제는 스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스님의 몇번에 걸친 권유로 두 형제의 귀가 솔깃해졌다. 그러고보니 비록 행색은 초라해도 보통 스님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정 그러시다면……, 저는 두고두고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라서 항상 걱정이 많답니다.”

형이 먼저 소원을 말했다.

“저는 자식들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동생도 소원을 말했다. 두형제의 소원을 들은 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잘 알았소. 그러면 그대 집안의 선산이 어딘지 가르쳐주시지요. 내가 그대들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산소터를 잡아드리리라.”

스님의 말에 두 형제는 선산으로 스님을 안내했다. 두 형제의 안내를 받은 스님은 선산에 도착하자마자 산세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북쪽의 산 중턱에 말뚝 하나를 꽂아놓았다.

“자, 여기가 형의 산소 자리요. 이곳은 그대의 자손이 대대로 번성할 산소자리지요. 한가지 유념할 것이 있소. 산소를 쓸 때, 장가 안간 자손이 있으면 하관하는 자리에는 오지 않도록 하시오. 횡액을 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스님은 다시 이곳저곳의 산세를 살폈다. 그리고는 반대편 남쪽방향의 중턱에 말뚝 하나를 또 꽂아놓았다.

“이곳은 동생의 산소자리요. 아마 이곳에 산소를 쓰면 그대의 자손들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요.”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각각 남쪽과 북쪽에 말뚝 하나씩을 꽂아놓은 스님은, 총총히 자리를 떴다.

그뒤로 여러해가 지난 뒤에 형이 먼저 세상을 떴다. 형이 묻힐 산소자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스님이 정해준 그 자리였다. 그러나 스님이 특별히 부탁하던 말을 집안식구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터였다. 장가 안간 아들이 하관 시에는 참석치 못하게 하라던 말이 못내 꺼림칙했다. 공교롭게도 그때 열세살짜리 미혼의 막내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의 끝에 막내아들은 집에 남겨놓고 상여를 출발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막내아들은 막무가내였다.

“세상에 마땅히 자식된 도리가 있는 법이거늘, 마지막 가시는 아버님의 하관을 보지 말라니…….”

막내아들은 팔팔 뛰었다. 식구들은 하는 수 없이 막내아들을 골방에 꼭꼭 가둬놓고 출발시켰다.

그런데 산에서 형의 시체를 땅속에 하관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겨있던 문을 뜯어부수고 막내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급히 뛰어가서 막내아들을 막았지만, 달려오는 힘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막내 아들은 사람을 밀치고 울부짖으며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순간이었다. 땅속에 묻히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던 막내아들이 폭 쓰러지며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스님의 정확한 예언에 감탄을 하면서, 아버지의 산소 밑에 막내아들을 위해 조그맣게 애기묘를 써주었다.

몇년후에는 동생이 세상을 떠났고, 스님이 정해진 남향의 그 자리에 산소를 썼다. 북향으로는 형과 막내아들의 산소가, 남향으로는 동생의 산소가 들어서고, 오랜세월이 흘러갔다.

스님이 정해진 산소 덕분이었을까?

북향에 모셔진 형의 후손들은 대대로 5,6형제씩을 두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퍼진 후손들이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파악이 안되는 정도이다.

그런데 남향에 모셔진 동생의 후손들은 어떠한가. 그 후손들마다 여전히 손이 귀해서 외아들 아니면 형제를 간신히 두는 것이 고작이었다. 어떤 때는 절손이될 위기에 처하기도 해서, 양자를 맞아들이며 대를 이어왔다. 그러나 동생의 소원대로 그 후손들이 손은 귀했지만, 대신 높은 벼슬과 만석꾼의 재산가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왔다.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에 세워진 효자문의 주인공 박기용은, 남향묘를 쓴 동생의 후손이다. 그 역시 예조참판까지 오른 높은 벼슬살이를 했고, 아들대대로 내려오며 재산 또한 만석꾼의 부자로 늘어났다.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남겨놓은 재산들이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다.

2) 박기용의 효심

“그것 참이상하다. 이게 어디로 갔을까?”

기용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살구나무를 유심히 살폈다. 기용의 집 뜰에는 커다란 살구나무가 한그루 있었다. 여름이 가까워오면서 먹음직스런 살구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다. 기용은 살구가 익어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아침에 보니 눈여겨 두었던 살구 몇개가 없어진 것이었다.

기용이 살구를 눈여겨둔 이유는 딱 한가지였다. 집안의 제일 어른이신 아버님께 먹음직스럽게 익은 살구를 따서 드리겠다는 효심에서였다.

“허허, 참. 제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익은 살구만 골라서 없어졌으니…….”

이가지 저가지에서 한두개씩 눈에 띄게 익어가던 살구를 매일 아침마다 눈여겨 두었던 터라, 어디에서 어떤 살구가 없어졌는지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지. 필시 요녀석의 짓이 틀림없으렸다.”

머리를 갸웃거리던 기용은 아홉 살짜리 외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기용은 요리조리 추궁한 끝에 아들에게서 살구를 따먹었다는 실토를 받아냈다.

“세상에 이렇게 철없는 녀석이 있나? 집안의 모든 음식은 당연히 제일 어른에게 먼저 드린후에 뒤따라 먹어야 하거늘……. 이는 분명히 이 애비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때문이구나.”

기용은 그즉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기거하는 방으로 달려갔다. 기용의 손에는 손가락만한 회초리가 한뭉음 들려있었다.

“아버님, 하찮은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 일인지는 몰라도, 이는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입니다. 자식을 잘못가르친 죄를 벌해주십시오.”

기용은 살구 애기를 꺼내며 자신의 장판지를 걷어올렸다.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쥐여드리며 회초리를 때려달라고 간청했다.

“허허, 아범의 효심을 내가 잘 알고 있거늘, 이런 일로 장성한 아들의 종아리를 때린단 말인가. 아범의 뜻을 알았으니 그만 하자꾸나.”

아버지는 아들과 손주를 바라보며 꺄꺄 웃을 뿐이었다. 기용의 이러한 효심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넣어드릴 정도로 대단하였다.

3) 주민들의 보답

세월이 흘러서 기용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기이하게도 기용의 장례 하 관 시간이 밤으로 정해졌다. 하는 수 없이 장례는 밤에 치를 수밖에 없었다. 장지는 은하면 대천리 대실 마을이었다. 30리가 넘는 산길을 캄캄한 밤에 상여가 나가야 할 판이었다.

집안식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말이 그렇지, 30리가 넘는 울퉁불퉁한 산길을, 캄캄한 밤에 상여를 메고 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도 모든 인근동네에서 이 사정을 알고 팔을 걷어부치고 자기일처럼 나서주었다. 때아닌 햇불행렬이 상여 앞을 밝히며 결성에서 은하까지 이어진 것이었다. 기용이 살아생전에 높은 벼슬살이를 했음에도 겸손했고,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검소한 생활로 일관하며 불쌍한 이웃을 위해 힘썼던 고마움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보답이었다

그후, 가난한 이웃을 위해 구휼에 힘썼고, 손가락을 깨물어 돌아가시려는 아버님께 넣어드렸던 기용의 호기심을 기리기 위해, 1865년(철종 15년)에 결성면 성호리에 효자문이 세워졌다. 그러다가 이 효자문은 후손들에 의해서 1995년 서부면 판교리 목동마을로 옮겨졌다.

제 2 장

사진으로 본 성호리의 여러 모습들

◇ 성호리 앞바다의 개펄들 ◇ (2000. 9. 23. 현재)



▲ 오방제각에서 바라본 성호 앞 개펄

▼ 상당에서 바라본 성호 앞바다 ◇



▼ 하당에서 바라본 성호 앞바다 ◇



(1988. 1. 27. 현재)



▲ 뱃머리에서 바라본 개펄



▲ 뱃머리 전경



▲ 오방제각에서 내려다본 마을 앞 개펄



▲ 원성호 전경



▲ 염전터 모습 (논으로 변함)



▲ 왕자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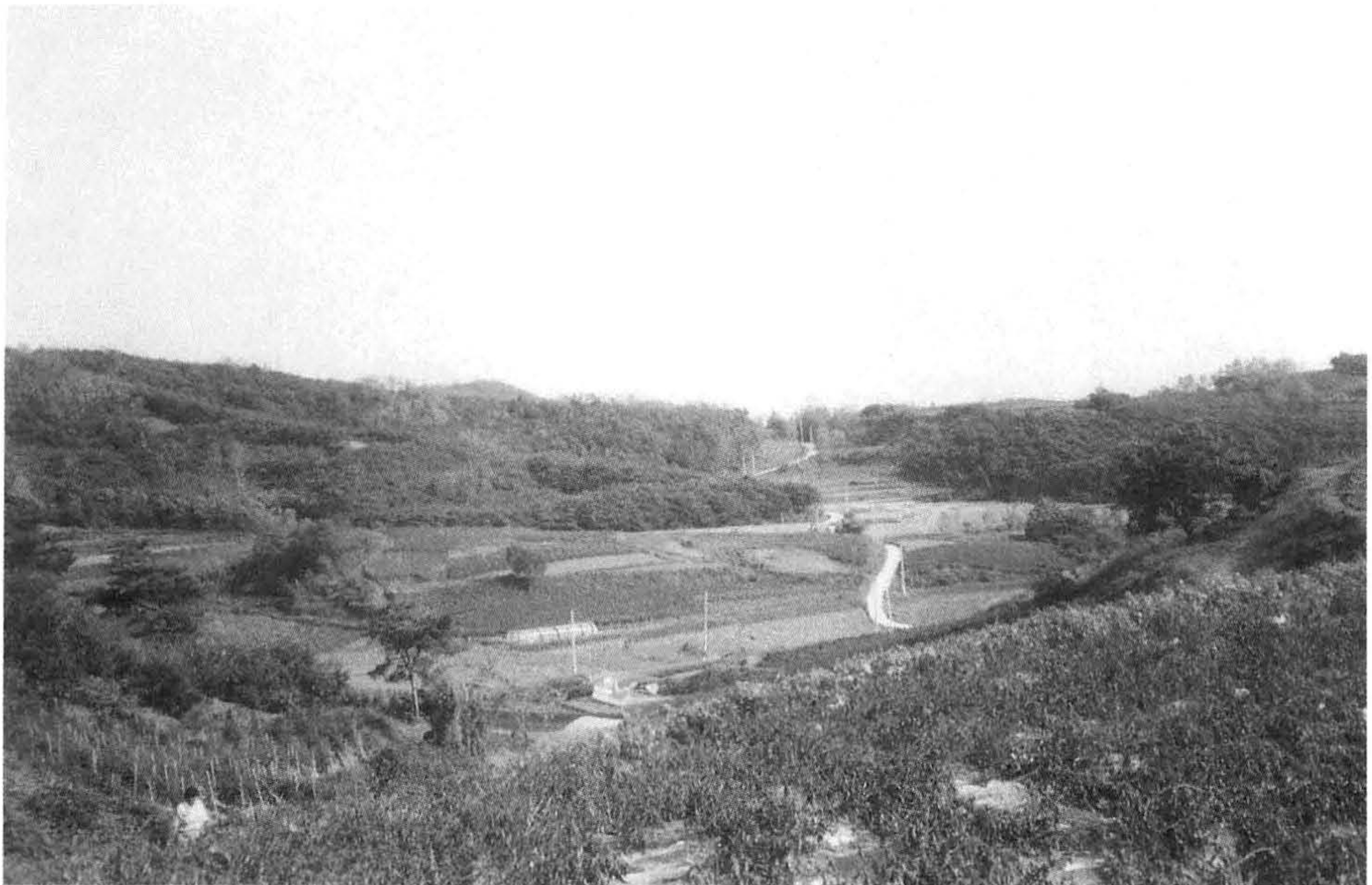


▲ 청룡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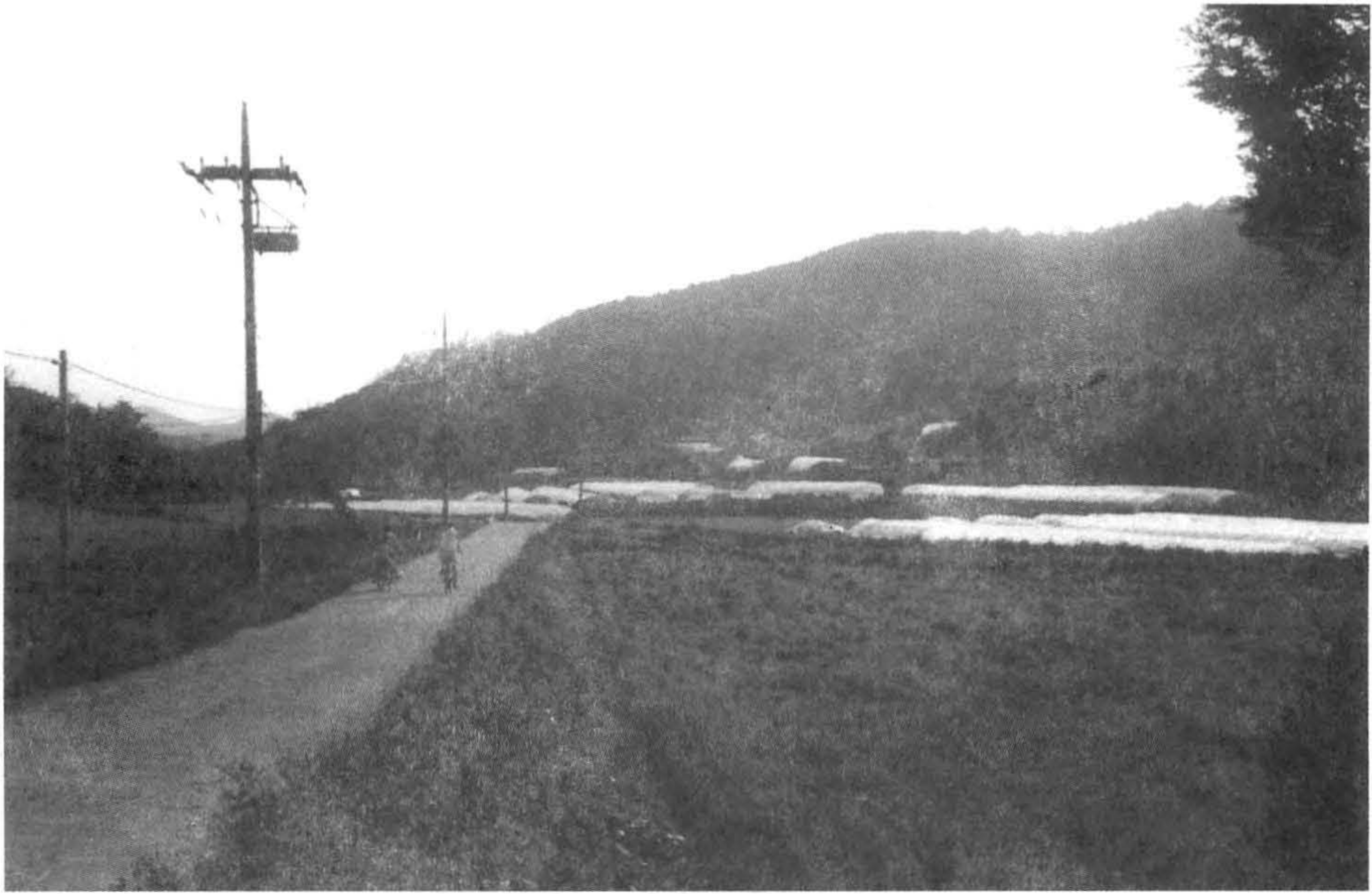


▲ 오방제각에서 바라본 성황당 고개

성호리 고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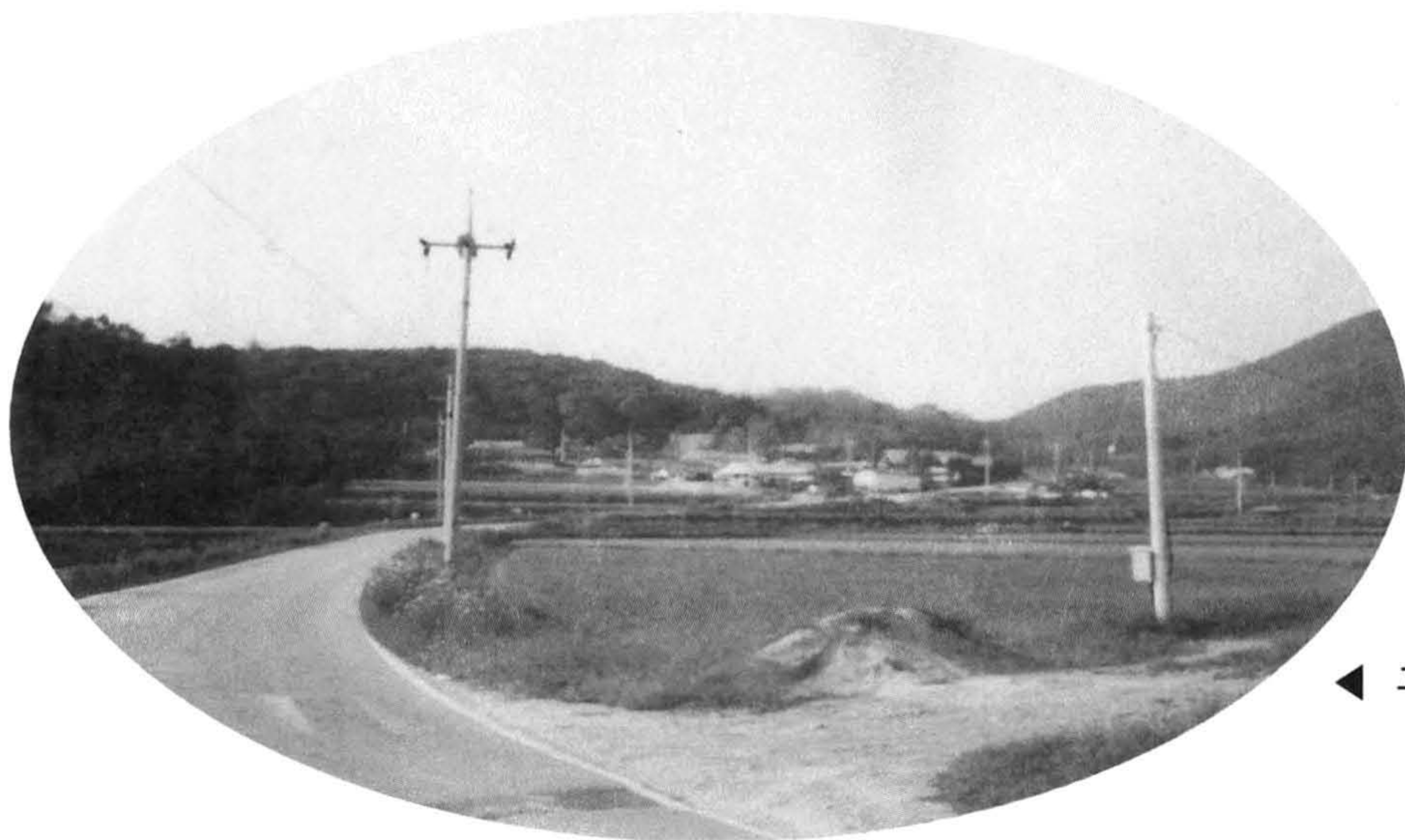
◀ 가곡에서 원성호 넘어가는 성호리고개



▲ 가곡마을 입구



▲ 가곡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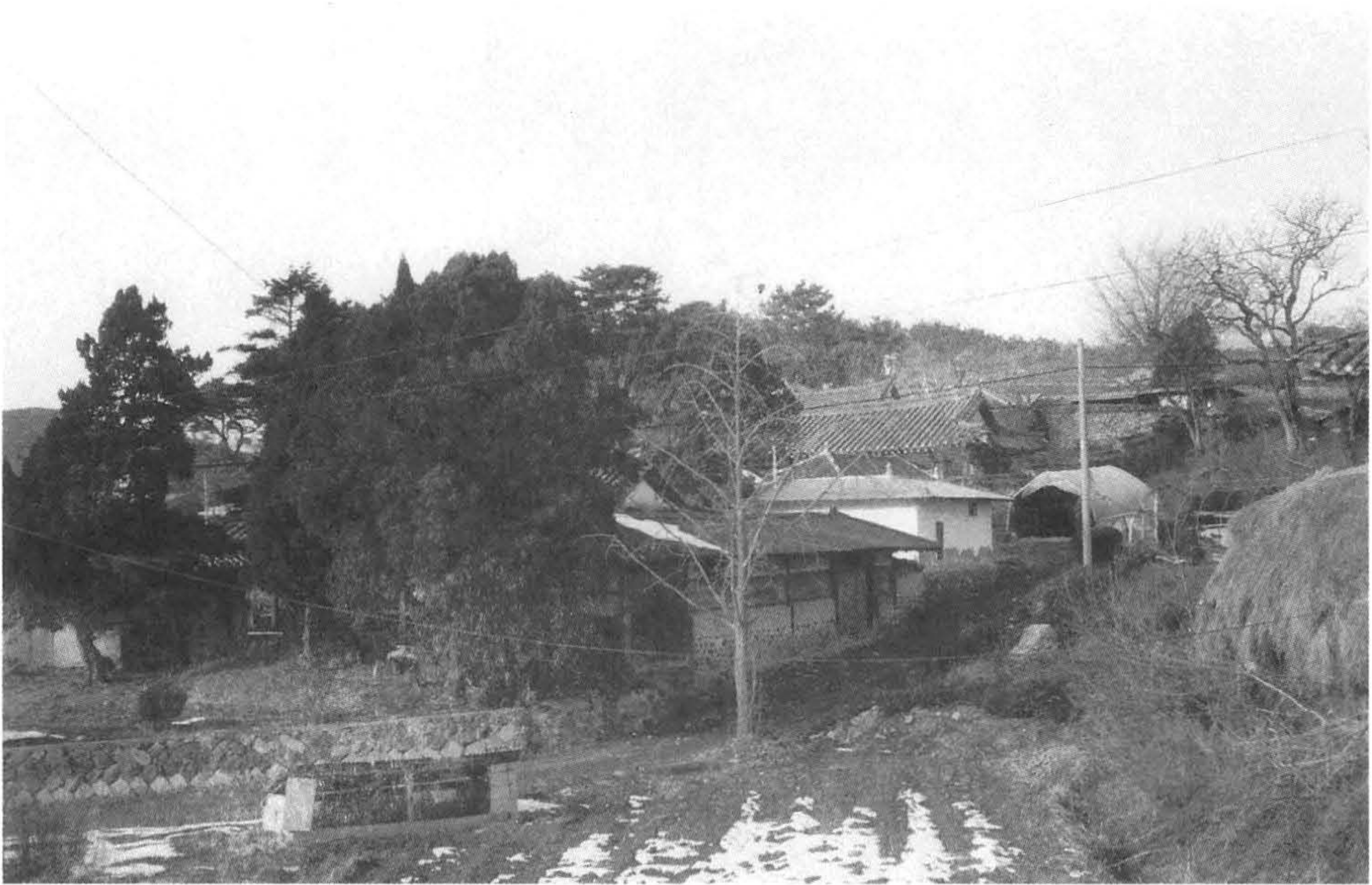


◀ 후청동 마을 전경



▲ 마을의 옛날 모습을 설명하는 주민

▼ 김청규씨 가옥전경



▼ 김좌진 장군이 묵어갔다는 김청규씨 댁 아랫채



◀ 성호리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



▲ 박기용 효자문 (판교리 소재)

◀ 가곡마을 버스정류장



◀ 원성호 마을 버스 정류장

원성호 감리교회 ▶



제 3 장

성 호 리 의 오 방 제

제 3 장 성호리의 오방제

- 조사일자: 1998. 1. 27. (음력 1997. 1. 29)
- 조사장소: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 마을 (노인 회관)
- 제 보 자: 김청규 (남, 62세, 대졸, 결성 농업협동조합장)
 - 사는곳: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 마을
 - 나서 자란곳: 사는곳과 같음

(김청규씨는 어려서부터 오방제 지내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보며 자람. 세월이 흐르며 오방제각이 풍수해로 파손되자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오방제각을 다시 재건함.)

이기일 (남, 60세, 보통학교 졸업, 농업)

- 사는곳: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 마을
- 나서 자란곳: 사는곳과 같음

(이기일씨는 젊어서 18년 동안 오방제를 지낼 때 화부로 따라다닌 경험이 있음)

맹용호 (남, 52세, 중학교졸업, 농업)

- 사는곳: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 마을
- 나서자란곳: 사는곳과 같음

(맹용호씨는 지난해까지 수년간 성호리 이장을 지내면서 풍수해로 파손된 오방제각을 재건하는데 힘씀. 이장을 역임하는동안 매년 오방제를 지낼 때마다 제관으로 참여함)

1. 명 칭: 오방제
2. 신 격: 산신. 해신
3. 당집의 위치

성호리 원성호 마을의 바로 뒤에는 야트막한 동산이 하나 있다. 이 동산의 상봉에 중당 또는 오방제각이라고 부르는 신당이 위치해 있다. 오방제각에서 동쪽으로 건너다 보이는 왕자산 기슭에 상당이라고 부르는 당이 있다. 원성호 마을 아래쪽에 바다와 맞닿은 포구 언덕에는 하당이 있다.

4. 당집의 형태

성호리 원성호 마을의 신당 형태는 상당, 중당, 하당의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중심적인 중당은 오방제각이라고 부른다. 오방제각은 원래 100여년전에 지은 기와집 형태의 건물이 있었는데, 30여년 전에 보수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1995년에 홍수로 인해 완전히 파괴 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집념으로 1997년에 국비를 지원 받아 17평 규모의 기와 건물로 다시 개축 하였다.

오방제각의 오방이란, 동·서·남·북·중앙을 뜻한다. 오방제각 신단 앞면의 중앙에는 오방신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고, 그 좌우로는 12지신상 그림이 있다. 그리고 신단에는 오방신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좌우 벽면에는 오방제각의 역사를 상징하는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오방제각 건물 앞에는 20여평 정도의 마당이 있고, 마당 주변에는 몇 그루의 오래된 신목들이 서있다. 마당의 동쪽과 서쪽에는 장승이 서있다.

상당은 원래부터 건물이 없고 자연물 형태이다. 이곳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앞에는 제사를 지내기 알맞도록 5평 정도의 평평한 터가 있다.

하당은 원래 100여년 전에 지은 초가 형태의 건물이었다. 오랜 세월동안 여러번 개축하며 기와를 얹은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20여년 전에 심한 비바람에 무너지고 건물 터만 남아 있다. 하당에는 신목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

5. 제의 목적

마을의 안녕과 무사 태평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바닷가 마을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많은 관계로 풍어는 물론 뱃길이 무사하기를 기원하기 위함이다. 제를 지내면서 마을 사람들끼리 협동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목적도 있다.

6. 제일(祭日)

음력 선달 그믐날 저녁 때부터 정월 초하루 새벽 한 시까지 지낸다.

7. 제의 주관자

제를 주관하는 사람은 마을에서 뽑힌 제관이다. 제관1명, 축관1명, 화부3명을 뽑는다. 상당, 중당, 하당의 제사에는 제관과 축관, 그리고 화부만 참여한다.

제관은 보름전에 생기복덕을 보아서 뽑는다. 제관으로 뽑히는 사람들은 행실과 가정

과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지금은 마을 이장이 제관으로 참여하며 제를 주관한다. 옛날에는 당주 집에서 음식을 차리고 모든 준비를 했지만 지금은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경로당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8. 금 기

제관으로 뽑힌 사람은 보름 전부터 몸가짐을 청결히 해야 한다. 부부관계도 금하고 부정한 행동은 물론이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아야 한다. 옛날에는 보름전에 집에 금줄을 치고 외부출입도 삼가했다고 한다.

9. 제물과 제의 절차

제물은 밤, 대추, 귤, 조기, 김, 탕, 술 등이다. 특히 밤과 대추와 귤은 각각 다른 그릇에 담아서 진설하는 것이 아니고 한 그릇에 같이 담아서 진설한다.

제물은 상당과 하당에는 한접시씩만 가지고 간다. 그러나 중당인 오방제각에서 제를 올릴 때는 다섯 접시를 준비한다.

제의 절차는 제일 먼저 음식을 가지고 상당으로 올라간다. 화부는 지계에 제물을 지고 제관과 축관이 함께 올라간다. 상당이라고 부르는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축을 하고 대동 소지를 한 장 올린다. 참석자끼리 음복을 한 후에 하산한다. 상당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시간 삼십분 정도이다. 상당에서 내려온 일행은 당주 집에서 차린 음식을 가지고 다시 하당으로 내려간다. 하당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지낸다. 하당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한 시간 정도이다.

하당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면 날이 어두워진다. 당주 집에 모인 마을사람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저녁에 오방당에 제사 지낼 준비를 한다.

화부는 선달 그믐날 점심을 먹고 미리 오방제각에 올라간다. 미리 올라가서 당집 청소를 하고 술을 걸고 음식 만들 준비를 한다. 그리고 허드레물로 사용될 물을 길어다 놓는다. 특히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될 물은 마을에서 길어오지 않고 오방제각 뒤편에 있는 왕자산에서 길어온다. 왕자산 절터에는 조그만 웅덩이가 있는데 음식을 만드는데 물은 반드시 그곳에서 길어와야 한다. 이 우물은 전날 미리 올라가서 깨끗이 청소를 해놓는다. 물을 길어올 때는 장군이라고 부르는 물독을 사용한다.

화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선달그믐날 밤 열두시가 가까워지면 메를 짓고 국을 끓

인다. 또한 제사에 사용하는 고기는 삶지 않고 반드시 구워서 상에 올린다. 화부가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축관과 제관은 열두시 경에 오방제각으로 올라온다. 선달 그믐날 밤 열두시부터 정월초하루 한시 사이에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면 새벽이 된다.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은 마을 주민이 나눠 먹는다.

옛날에는 오방제를 지내는 날 샘제도 같이 지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공동우물이 여섯 개가 있었다. 낮에 우물을 깨끗이 퍼내고 주변에는 황토를 뿌려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우물에는 막대기를 걸쳐놓고 밀대방석으로 덮어 놓았다. 이는 샘제를 지낸다는 표시였다. 오방제를 지내기 위해서 제관들이 중당으로 올라가면 곧 이어서 샘제를 지냈다. 샘제는 그 우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들이 지냈다. 샘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무우 1개, 김 1첩, 쌀 1되였다. 그러나 지금은 샘제를 지내지 않는다.

또한 옛날에는 제관도 화부들과 같은 시각에 오방제각에 올라갔다고 한다. 화부들이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 제단 앞에서 밤 열두시가 될때까지 읍한 자세로 몇시간동안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장만하면서 소변을 보게 되면 성기를 손으로 만지지 않고 대추나무로 젓가락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대소변을 보고 났을 때는 반드시 물로 손을 깨끗이 씻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창호지로 입마개를 했다. 마을의 동서남북과 중앙에는 오방기를 꽂아놓고 잡귀의 접근을 막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생략되고 간소하게 지내고 있다.

10. 제사의 비용과 결산

옛날에는 성호마을에 공동재산인 전답이 있었다. 4,000여 평이 되는 상당한 재산이었다. 이 전답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비용을 충당했다. 이 전답은 대개 자식들이 장성하고 부정이 끼지 않을 노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부부관계도 갖고 여자의 임신과 생리 등으로 부정이 많이 끼기 때문에 피했다. 오방제를 지낼 때는 마을 전답을 관리하는 집에서 당주를 담당하고 제물을 차렸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 전답이 거의 없어졌다. 19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적에 매각해 버렸다. 마을에 전기를 끌어들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600평 정도만이 남아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에다가 마을 기금을 보태서 제사 비용을 충당한다. 지금은 아주 간소하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

요된다.

11. 마을 사람들의 신앙 태도

원성호 마을 사람들의 오방제에 대한 믿음은 대단하다. 오방제를 정성껏 지내는 관례로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별 탈없이 무사하다고 믿고 있다.

옛날에 마마라고 하는 돌림병이 나돌 때, 다른 마을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마을은 그 화를 무사히 피할 수가 있었다. 6·25사변 때도 이 마을은 큰 탈 없이 넘어갈 수가 있었다. 또한 젊은 사람이 비명횡사한 경우도 없었다. 그것은 오방제를 지성으로 지냈기 때문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원성호 마을 사람들은 전 주민이 합심해서 파손된 오방제각을 복원했다. 이는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잘 보전하고 계승하여 우리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행위야말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2. 유래 및 전설

원성호 마을에서 오방제가 시작된 유래는 확실하지가 않다. 다만 하당과 중당에 몇 차례 중수한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마루어 보아, 적어도 300여년은 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증거로 하당 건물에 전해지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星湖神當(下當) 상량문(의역본)

유세차 1671년(음력 3월 26일) 충청도 결성현 성호리 한량 신계복은 ○하고 옆드려 감히고 하나이다. 신당의 신을 모시고자 묘를 세우고 신상을 ○하여 받들어 왔습니다. 마을이 열리면서 향화를 년년히 올리며 제사 지내오기 몇 수백년이 지내도록○히 강림 하시고 성호 마을을 각별히 지켜주시었습니다.

이제 옆드려 부락 수호신에게 조석으로 간절히 비옵나니, 微誠에 가합하시는데로 여러 소원을 청허하여 주시와 성호마을이 더욱 부강케 하여 주옵소서. ○어포선에는 긴 고래와 상어가 뛰어 놀고, 중선과 소선이 언제나 만재하도록 수시로 언제나 은혜로운 바람과 감사한 비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비는대로 모든 가정마다 집안 식구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다만 한스럽기는 옛 기와와 묵은 벽이 허물어져 비가 새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수로

와 기와를 개수하고 동량을 새로하고 온돌을 개량하고 뜰고랑을 치며 날짜도 가리어
담장도 말끔히 개수하였습니다.

.....중략.....

기리 제향을 올리겠으니 흔쾌히 酬應하시기를 바라나이다.격양가도 즐겁게 融融히도
올리누나. 이고장의 북록이로다. 300여호가○한 이고장배의 북소리도 둥둥 수천리 가도
록 성대히 올리니, 파도여 언제나○하소서.

끝으로 미성이나마 진설물을 흠향하시기 바라나이다.

1671년 3월 26일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신계복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오방제의 역사는 300년이 넘는다고 볼 수가 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전해지는 얘기들도 많다. 중당은 동네 뒷산에 위치해 있어서 한
겨울 바닷 바람을 정면에서 받는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중당에 올라가 보면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어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사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피울 때면
바람이 잠잠해진다고 한다. 또한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먹는 젓가락 소리고
들렸다고 한다.

하당 건물은 한때 불이 난적도 있었다. 100여년 전에 하당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모
닥불 옆에 있던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 다행히도 신당은 무사했으나 신
당 앞에 신목으로 심어 놓은 소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고 말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듬해 봄에 소나무의 가운데 뿌리 사이에서 새로운 움이 돋아나
서 회초리만한 크기로 자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죽은 나무에서 다시 소생했다고 신
기해 했다. 지금 그 소나무는 양갈래로 갈라져서 우람한 모습으로 신당에 우뚝 서 있
다. 지금은 신목으로 보호를 받으며 그 기상을 자랑하고 있다.

제 4 장

사진으로 본 성호리의 오방제

▼ 오방제각 전경





▲ 원성호에서 건너다본 오방제각 전경

▼ 상당에서 바라본 오방제각 전경



▼ 하당에서 바라본 오방제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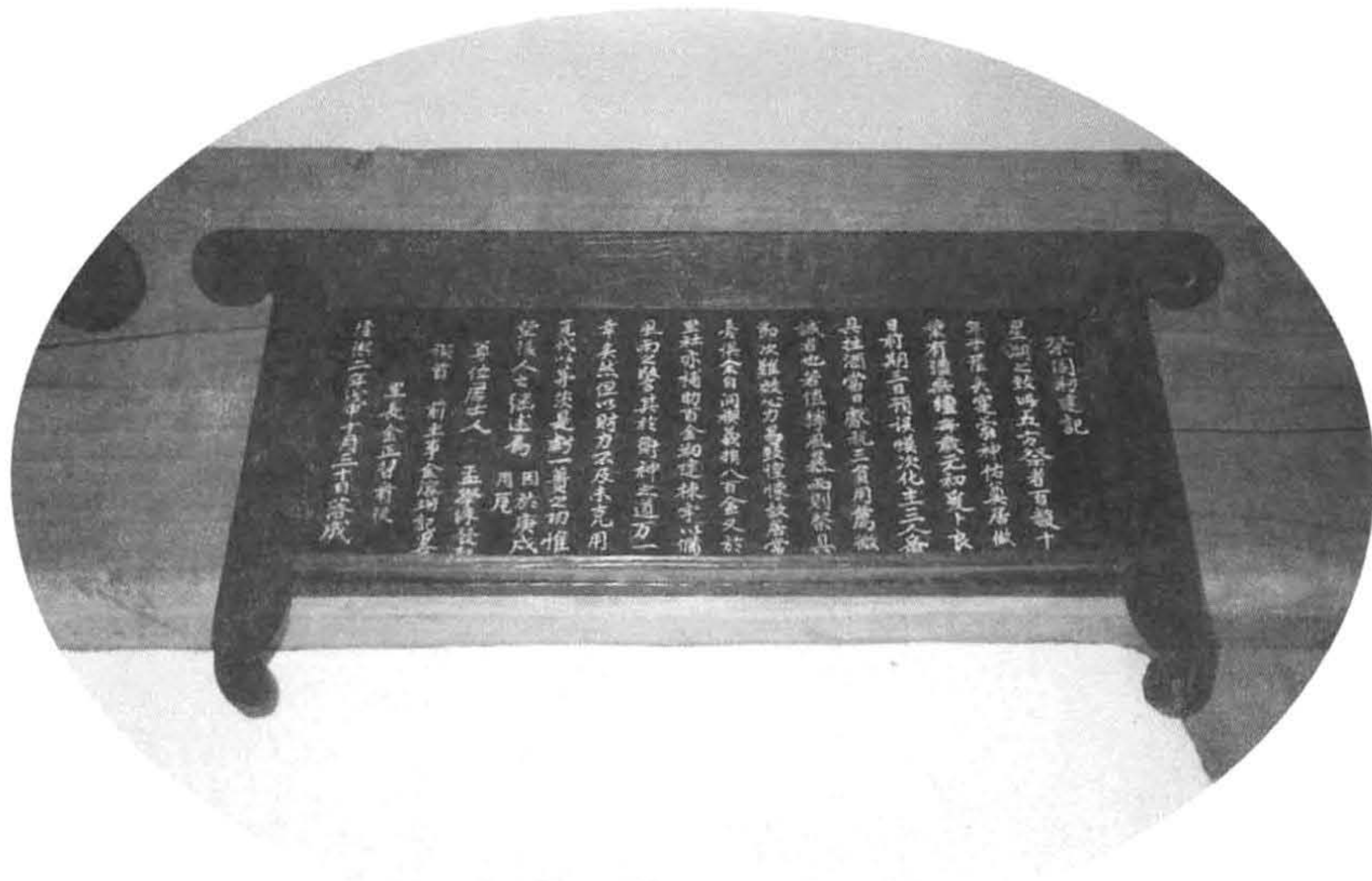
▼ 오방제각 앞뜰의 장승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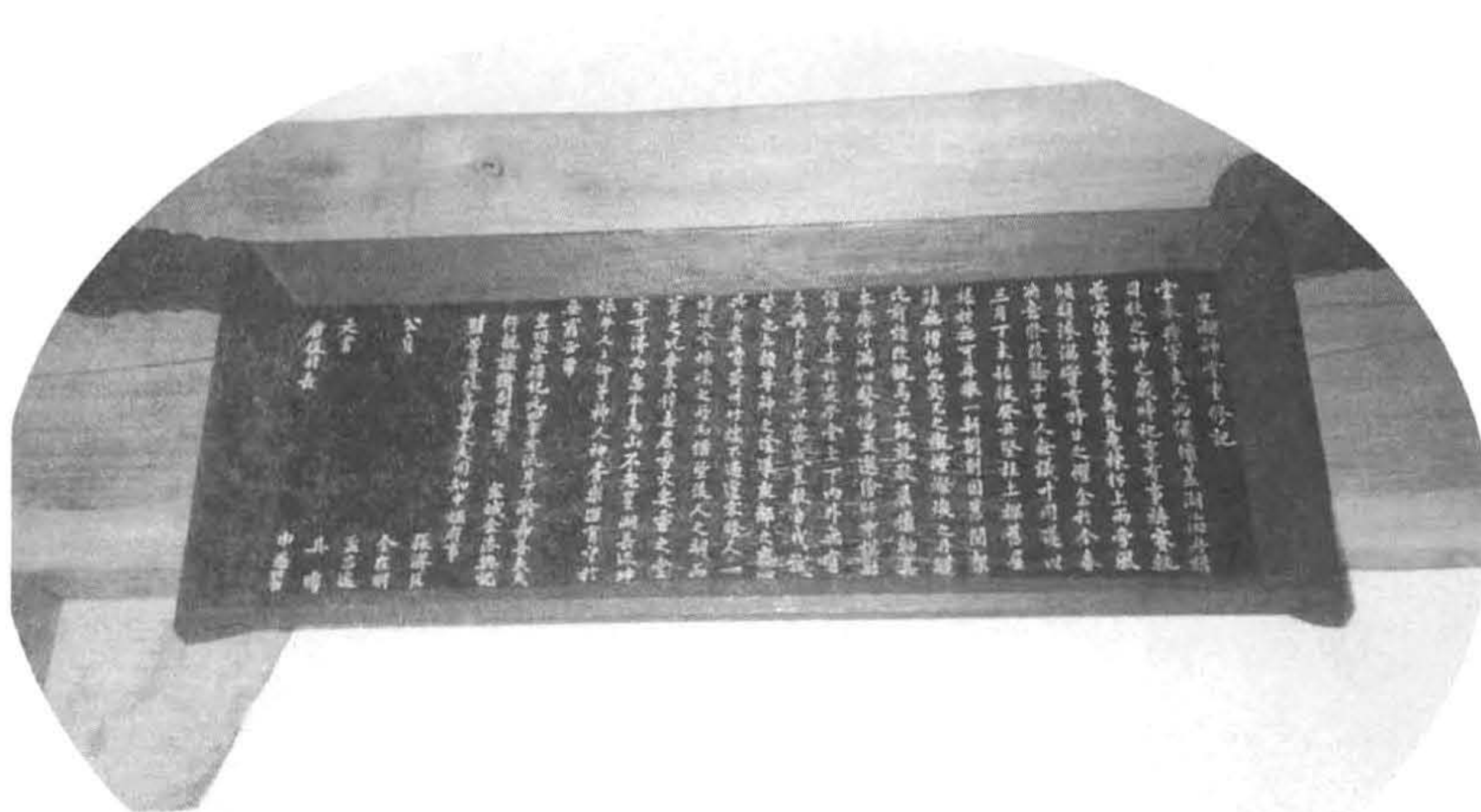
▼ 오방제각 현판



▼ 성호신당 개건기



▼ 성호신당 중수기



▼ 성호신당 개건기



▼ 성호신당 현판



▼ 오방제각 현판



▼ 오방제각 준공 모습



▼ 오방신(동·서·남·북·중앙)신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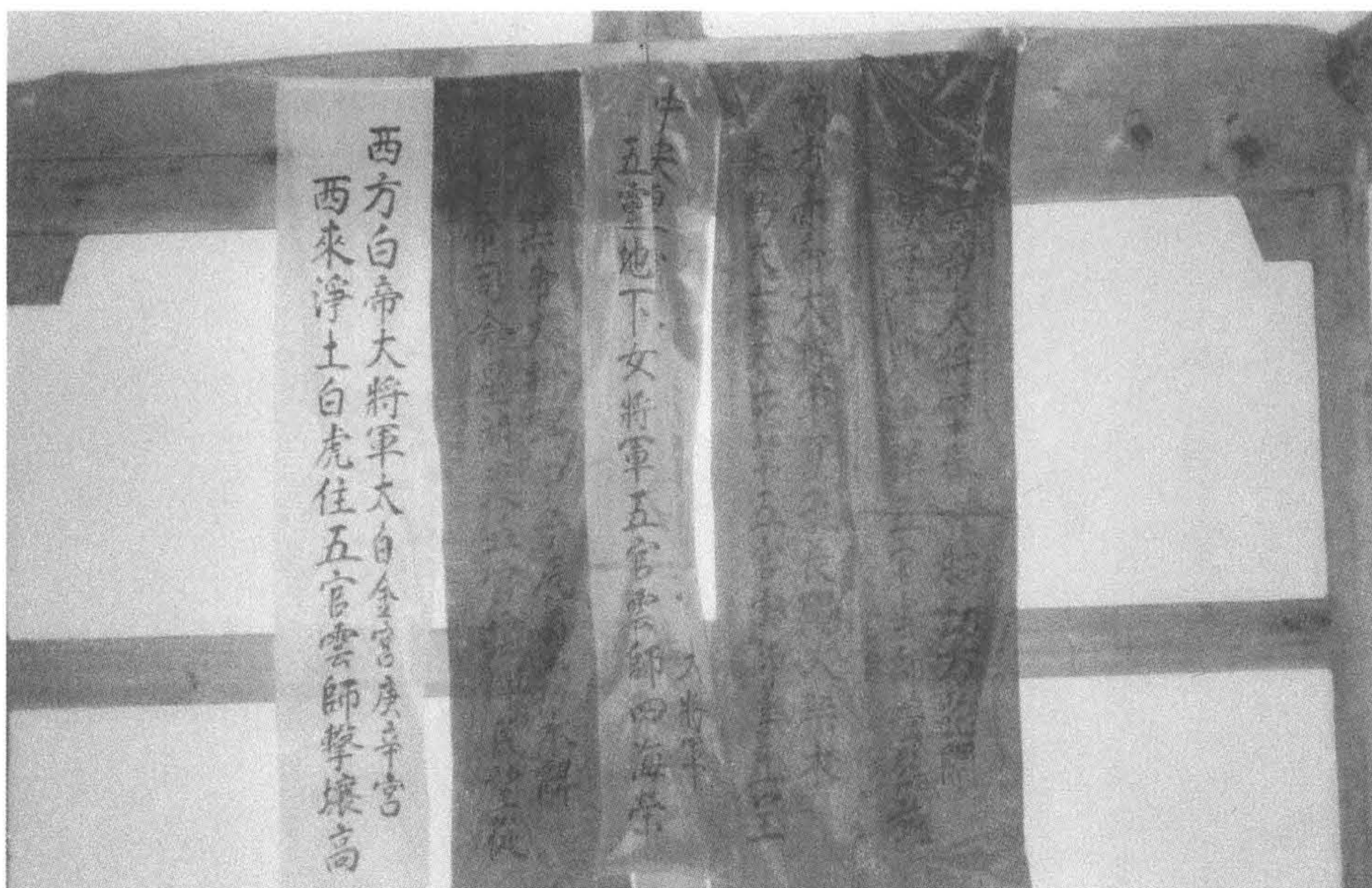
▼ 십이지신도







▼ 오 방 기



▼ 상당으로 향하는 모습 (제물 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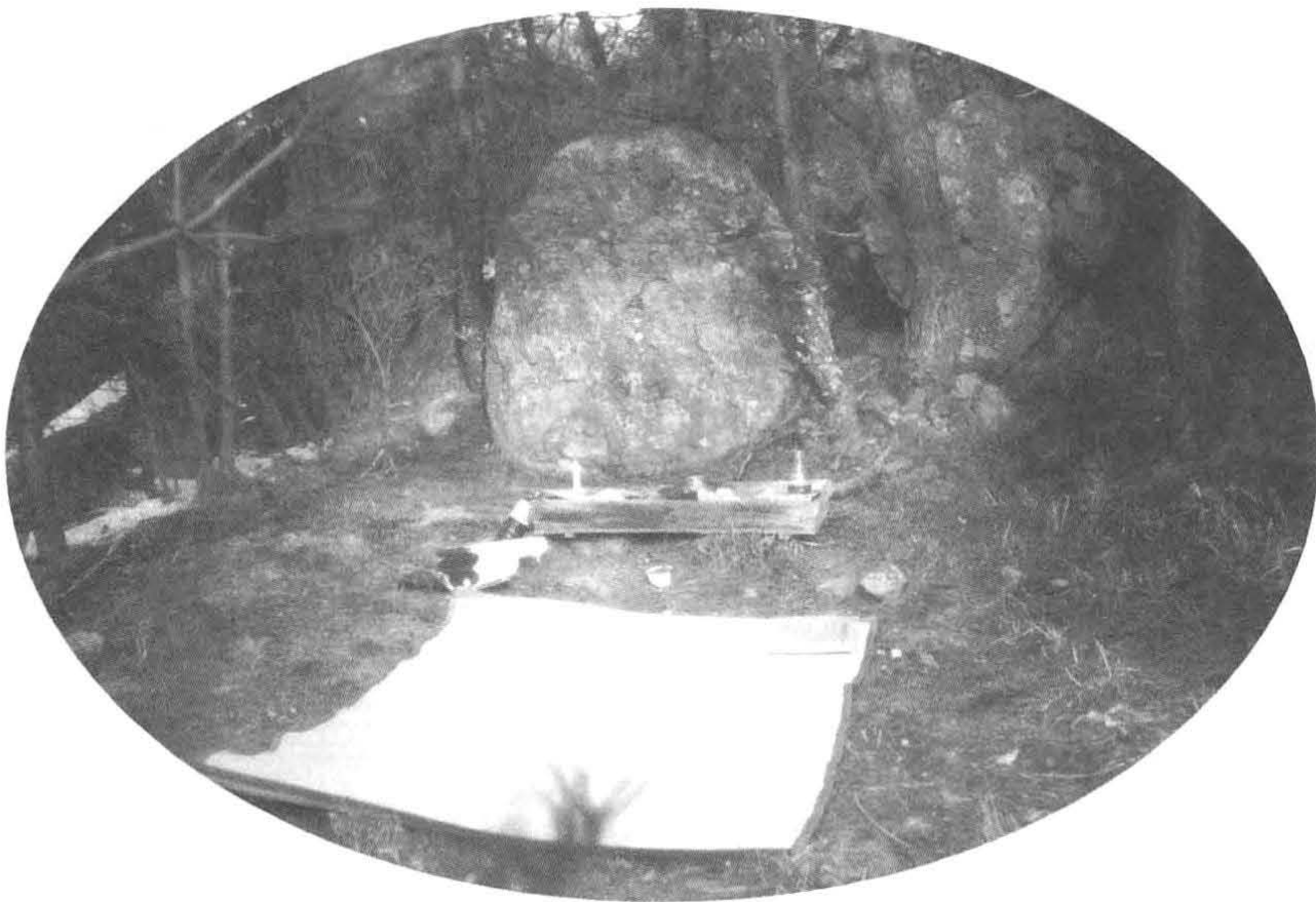
▼ 제물운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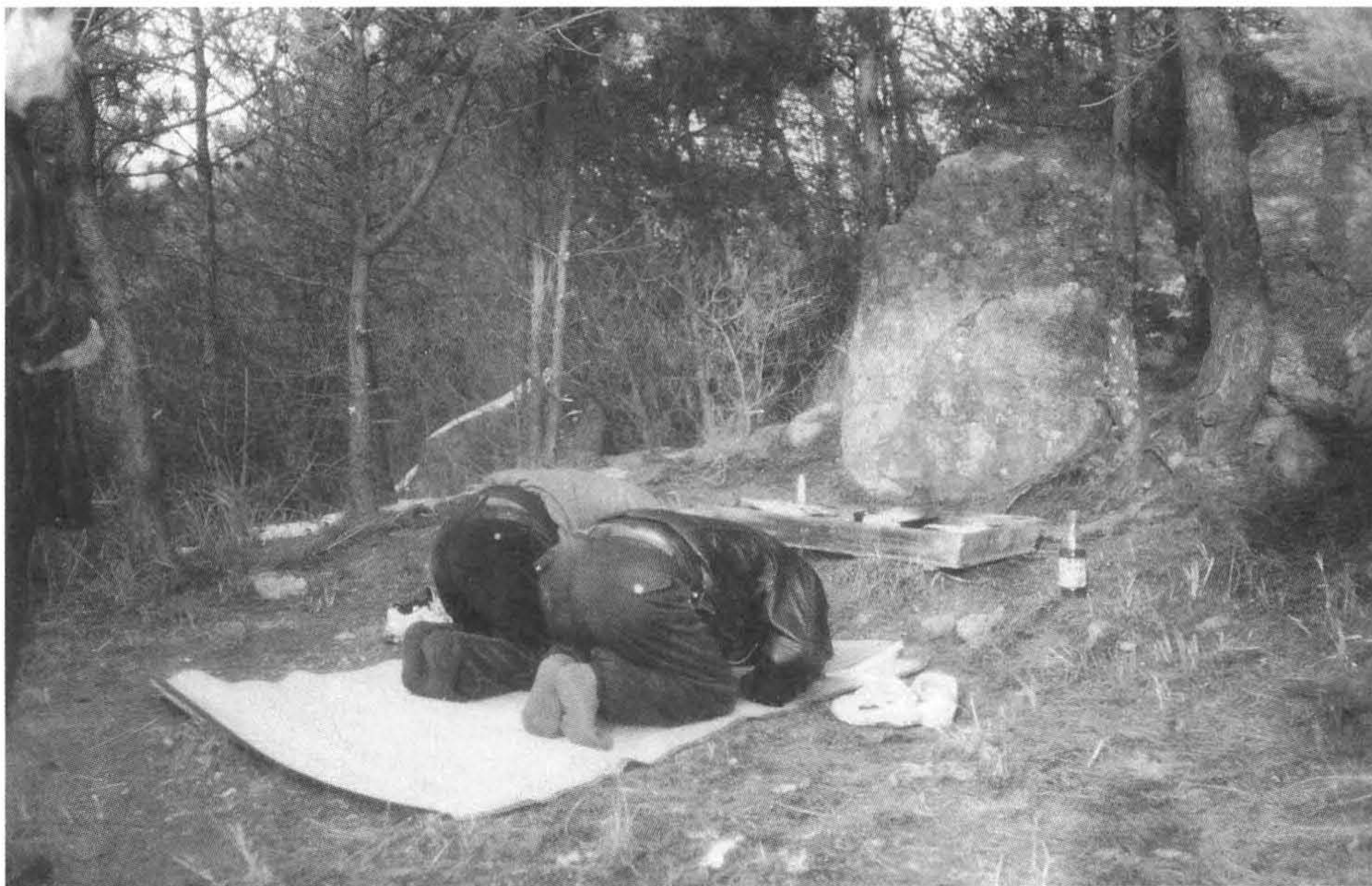
▼ 금줄을 친 제주집 대문 모습



▼ 상당 모습



▼ 상당에서의 제사 모습









▼ 제물 모습



▼ 하당 전경



하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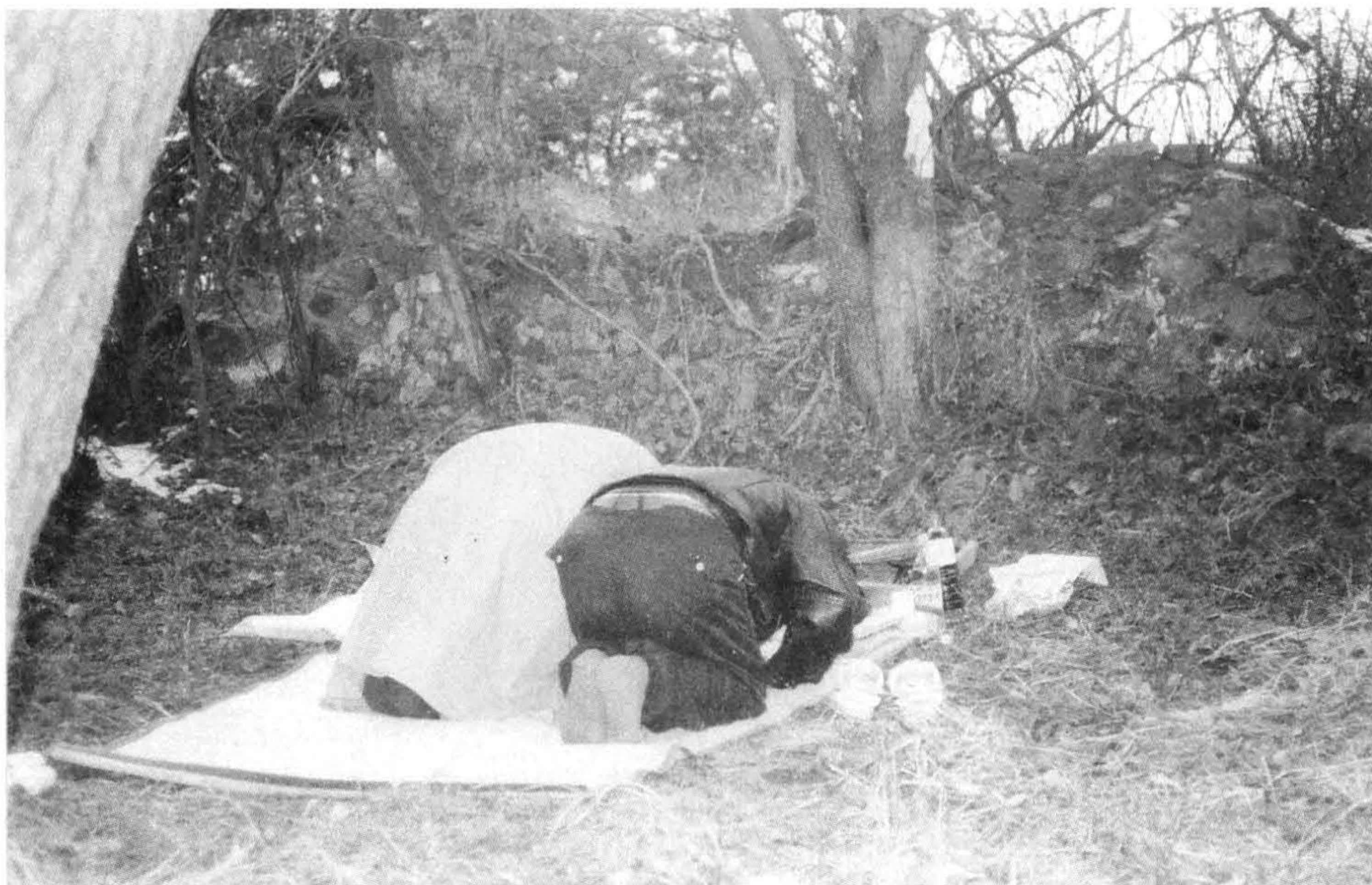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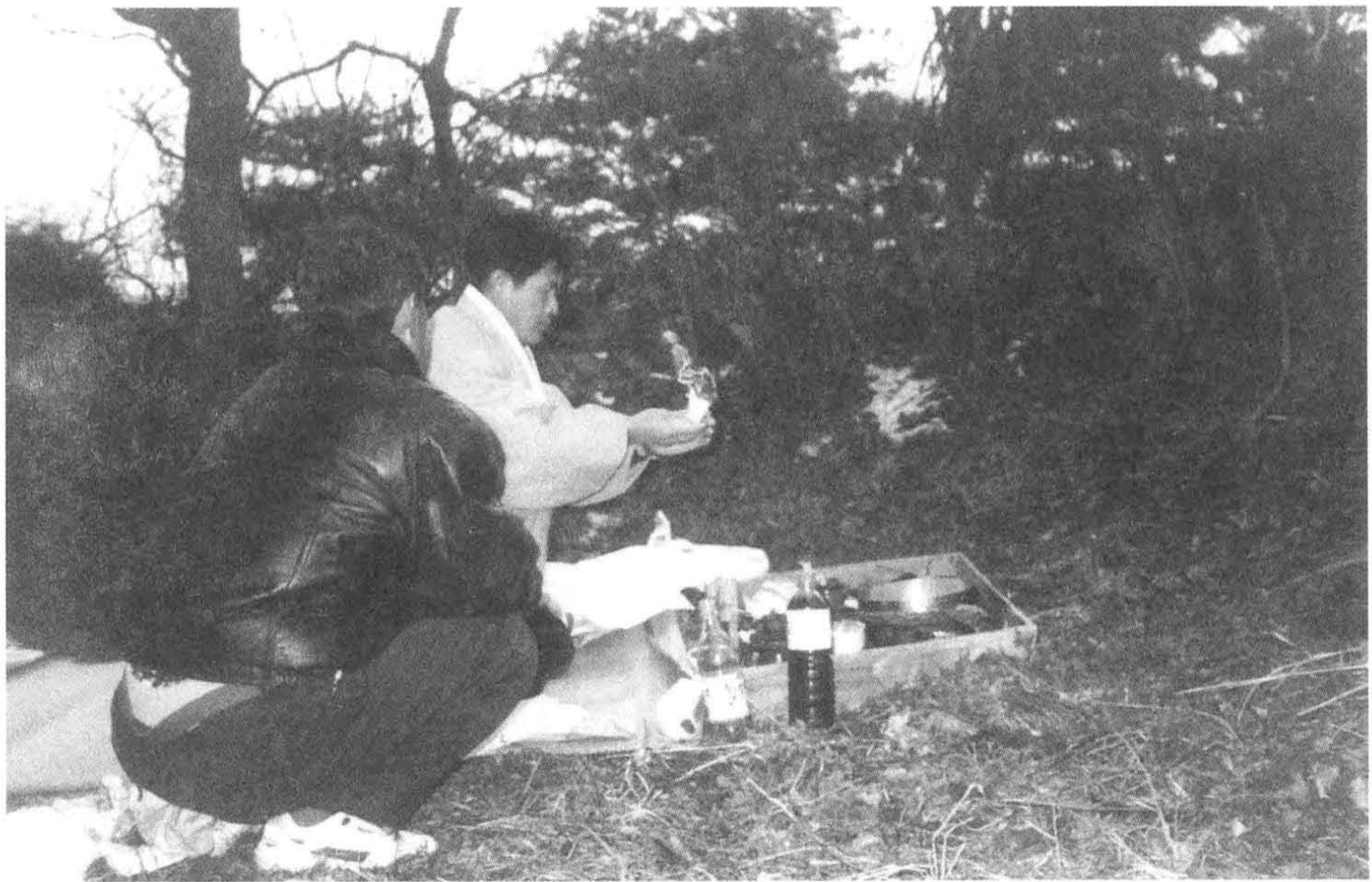


▼ 하당으로 향하는 모습



▼ 하당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







▼ 제물 모습



▼ 오방제를 설명하는 주민들









저작약력

김

정

현

충남 홍성출생, 홍성고등학교 졸업
공주교육대학교 졸업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졸업, 교육학 석사
동화작가
충남문학 유공상, 아동문예작가상 수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수상
현재광동초등학교 근무

저 서

할머니와 누렁이(아동문예사, 1990)
울보늬둥이(대교출판사, 1992)
병어리네 외아들 득한이(아동문예사, 1993)
어린이 논리 독서교실 동화랑 나랑(공저, 학영사, 1994)
털보선생님과 까불이들(꿈동산, 1995)
친구가 된 손자와 할머니(가정교육사, 1996)
홍성과 전설과 효열(공저, 홍성문화원, 1995)
홍성의 무속과 점복(공저, 홍성문화원, 1997)
방아다리 사람들(꿈동산, 1998)
아빠가 아들에게 주는 사랑의 편지43(문공사, 1999)
그 많던 도깨비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아동문예사, 1999)

성호리원성호마을 오 방 제

인 쇄 2000년 12월 20일
발 행 2000년 12월 30일
저 자 김 정 현
발행인 이하영
발행처 홍성문화원
350-807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전 화 (041)632-3613/634-9659
팩시밀리 (041)632-1199
인 쇄 처 조양인쇄
350-807 충남 홍성군 홍성읍 124
전 화 (041)632-2363/634-2363

*이책은 도비, 군비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